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큐비즘 이미지를 활용한
메이크업 작품 연구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이 종 애

큐비즘 이미지를 활용한
메이크업 작품 연구

문 윤 경 지도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이 종 애

인 준 서

이종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인들은 매일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급격한 산업발전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예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이 생성되기 시작 하였다. 그 중에는 장르와 장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hybrid) 현상이 생겼는데, 이 현상은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이며, 21세기 문명화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현상은 미술과의 결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907년부터 1914년 사이 피카소와 브라크를 주축으로 일어난 미술 운동 중 하나인 큐비즘(cubism)의 결합 또한 여러 장르에서 볼 수 있는데, 큐비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건축과, 미술, 패션 분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다.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큐비즘과의 결합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피카소와 관련된 논문들이 대부분이며, 브라크와 그들의 표현기법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메이크업 분야에 대한 인식은 예술성 보다는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메이크업 분야는 기술성도 중요하지만 예술성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크업이 큐비즘과의 결합을 통하여 메이크업 분야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독창성 있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큐비즘의 관련 전문 서적과 선행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개념에 대하여 조사한 뒤, 그에 따른 회화적 특성과 표현기법을 분류하고, 큐비즘 화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 작가를 선정 후, 그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총 8가지의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첫째, 큐비즘은 원근법을 중요시하던 기존 회화에서 벗어나고자 다시점이라는 기법을 시도하였으며, 모노크롬적 색채를 사용하였다. 증기에 이르러 대상은 극도로 분할되어 나타났고, 그 해결 방법으로 플라주와 빠삐에 꼴레를 사용하였던 미술운동을 말한다.

둘째, 시대적, 회화적 분류에 따라 표현 기법을 조사하였다. 분석적 큐비즘의 다시점은 다양한 시점을 한 화면에 담는 것이며, 투명성은 중첩에 의한 것으로 겹쳐져 있지만 사실상 존재한다는 현상적 투명성을 뜻한다. 종합적 큐비즘의 플라주는 종이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붙이는 기법이며, 빠삐에 꼴레는 종이만 사용하여 붙이는 기법을 뜻한다. 플라주와 빠삐에 꼴레는 똑같이 종이를 사용하였어도 빠삐에 꼴레는 종이의 질감과 색채로서 그 기능을 갖는 것이다.

셋째, 대표 작가는 큐비즘의 창시자인 피카소와 브라크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4작품씩 조사하여 분석적 큐비즘의 다시점적인 표현과 해체와 재조합의 영향으로 배경과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종합적 큐비즘에서는 사라졌던 색채가 부활하였으며, 문자의 도입, 단순화된 구조가 특징이라는 것을 분석하였다.

넷째, 대표작가의 작품 8가지를 모티브로 하여 표현기법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I 은 'Dual Personality' 라는 주제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사람의 정면과 측면 모습을 분할하여 한사람의 얼굴에 여러 방향을 담아내는 다시점의 양식을 사용하였다.

작품 II 는 'World of concentric' 라는 주제이고,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 다시점 표현 방법 중 물체의 모습을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았을 때 물체의 모든 모습을 한꺼번에 그려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작품Ⅲ은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고, 주제는 'Portrait of a bride'이다. 투명성의 특징인 배경과 모델이 하나의 형체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델과 배경 모두 해체하듯이 입방체 모양으로 나누었고, 분석적 큐비즘의 대표적인 색상 중 하나인 갈색을 사용하였다.

작품Ⅳ는 Parrot라는 주제로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해체와 재조합 과정에서 겹쳐진 면은 투명하게 표현 하였다는 작품의 의미를 모델의 눈썹 위에 프린팅 된 모델의 눈썹을 잘라 붙여 메이크업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투명성을 나타내었다.

작품Ⅴ의 주제는 'Gentle breeze'로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웨이브의 형태를 그려 바람을 표현하였다. 피카소의 작품<기타>에서 모티브를 얻어 색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산들바람의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Ⅵ '등나무가 있는 정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주제는 'Freedom and redemption'이다. 피카소가 캔버스와 신문지, 우포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작품의 주제는 '타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작품Ⅵ 또한 직·간접적으로 주제가 자유와 구속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작품Ⅶ은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Springtime in bee'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작품Ⅶ에서 꿀판지의 곁은 꿀벌의 줄무늬 패턴을 의미하며, 갈색의 색상을 부여하여 꿀벌의 색상인 노란색과 갈색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Ⅷ은 'Resurrection of the Queen'이라는 주제이다. 작품Ⅷ은 여러 가지 화장품의 형태를 브라크의 작품에서처럼 중첩시키고, 화장품의 색상은 그대로 메이크업에 반영하여 작품에 색채를 부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큐비즘의 개념	4
2. 큐비즘의 분류	6
3. 큐비즘의 대표작가	22
III. 작품제작	31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31
2. 작품제작	33
IV. 결론	6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큐비즘의 분류	19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	32
<표 3>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34
<표 4>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37
<표 5>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41
<표 6>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45
<표 7>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48
<표 8>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51
<표 9> 작품 VII 디자인 이미지	54
<표 10> 작품 VIII 디자인 이미지	58

그림 목 차

<그림 1> 브라크 “레스타크의 집들”	12
<그림 2>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2
<그림 3> 브라크 “바이올린과 팔레트”	12
<그림 4> 피카소 “테이블 위의 과일 그릇과 빵”	12
<그림 5> 브라크 “라 로슈 귀용의 성”	13
<그림 6> 피카소 “오르타의 저수지”	13
<그림 7> 브라크 “바이올린과 꽃병”	13
<그림 8> 피카소 “칸바일러의 초상”	13
<그림 9> 브라크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20
<그림 10> 피카소 “바이올린”	20
<그림 11> 피카소 “등나무가 있는 정물”	20
<그림 12> 피카소 “신문을 읽는 학생”	20
<그림 13> 브라크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	21
<그림 14> 브라크 “기타와 클라리넷”	21
<그림 15> 피카소 “페르낭드의 초상”	29
<그림 16> 피카소 “통곡하는 여인”	29
<그림 17> 피카소 “기타”	29
<그림 18> 브라크 “안트워프 항”	29
<그림 19> 브라크 “만돌린과 여인”	30
<그림 20> 브라크 “포르투갈의 사나이”	30
<그림 21> 브라크 “그라프 카드가 있는 구성”	30
<그림 22> 브라크 “바흐의 아리아”	30

<그림 23> 작품 I - “Dual Personality”	35
<그림 24> 작품 II - “World of concentric”	38
<그림 25> 작품 III - “Portrait of a bride”	42
<그림 26> 작품 IV - “Parrot”	46
<그림 27> 작품 V - “Gentle breeze”	49
<그림 28> 작품 VI - “Freedom and redemption”	52
<그림 29> 작품 VII - “Springtime in bee”	55
<그림 30> 작품 VIII - “Resurrection of the Queen”	59

I. 서론

21세기의 사람들은 과거와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세기에 급격한 과학 분야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또한 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지만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상류층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예술은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서서히 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문화적 발전 또한 성장했고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면서 현대에는 여러 분야와 장르, 문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현상은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이며, 21세기 문명화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¹⁾. 특히 미술과의 결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 패션부터 일상생활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큐비즘 또한 현대의 미술과 건축, 패션 분야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

브라질 출신의 미술가인 로메로 브리토(Romero Britto, 1963 -)는 큐비즘에서 영감을 얻어 네오팝 큐비즘이라는 장르를 창시했고 디즈니, 벤들리, 펩시 등 여러 회사들은 그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제품을 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큐비즘이 계속하여 주목 받고 연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건축 분야에서 김성봉(1999)²⁾은 큐비즘의 조형성이 러시아의 건축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고, 패션 분야의 성필규(2010)³⁾는 분석적 큐비즘 회화를 대상으로 하여 기하학

1) 조우인(2013),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 김성봉(1999), 「입체파의 조형성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성필규(2010),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

적 입체 형태와 모노크롬적 색채를 패션디자인에 도입하여 현대인들의 세련되고 섬세한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이경아·박선경(2001)⁴⁾은 큐비즘의 조형적 특성인 기하학적 조형과, 동시성, 투명성, 꼴라주가 언급되어 현대패션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적 근거를 미술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큐비즘의 특성이 활용 되었으며, 미용 분야의 홍주영·김성남(2013)⁵⁾은 큐비즘 회화를 조형작품에 도입하여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큐비즘 이론을 응용하여 예술사조가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모티브가 되고 영감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이크업 분야에서 큐비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현신(2011)⁶⁾은 피카소의 큐비즘 이미지가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경미(2012)⁷⁾는 피카소의 큐비즘적 표현을 아트메이크업과 Photoshop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강현신의 연구는 고찰 논문이었으며, 이경미의 연구는 작품 논문으로 큐비즘적인 요소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큐비즘에 대한 표현은 메이크업에서 보다는 Photoshop의 작업에서 강하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메이크업 분야에서 큐비즘에 대한 연구는 화가 중 한명인 피카소에 대한 논문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큐비즘에서 빠질 수 없는 브라크와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실질적인 메이크업으로 표현한 작품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메이크업 분야는 예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기술성

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6

4) 이경아, 박선경(2001),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연구 -20세기 후반 패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 p.49

5) 홍주영, 김성남(2013), 「큐비즘 회화를 응용한 조형작품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636

6)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경미(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큐비즘이라는 미술 사조를 메이크업에 직접 활용하여 메이크업 분야의 예술적 가치 창출과 큐비즘을 통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큐비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메이크업 작품연구를 하고자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큐비즘의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큐비즘에 대한 회화적 특성과 표현기법의 특징을 분류하여 고찰한다.

셋째, 대표 작가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큐비즘의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앞서 분석한 큐비즘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메이크업 작품 제작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큐비즘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논문 및 다양한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큐비즘의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 8가지를 제작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큐비즘의 개념

미술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삼차원적인 표현을 캔버스와 같은 평면위에 옮기는 것에 대해 고심해 왔다⁸⁾. 19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시켜 새로운 표현 형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⁹⁾. 그로인해 서양 회화 방식의 수 세기 동안 전통이라 할 수 있었던 원근법은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 - 1877)의 사실주의 회화 이후 인상주의에 이르자 기존 회화의 방식은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원근법에 의한 회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며, 생각하고 해석하여 개념화시킨 회화 공간 그대로를 인정하는 큐비즘(cubism)이 등장¹⁰⁾하게 되었다.

큐비즘이란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 - 1973)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 - 1963)를 주축으로 시작된 미술 운동으로 1908년 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 - 1954)가 친구이자 미술 평론가인 루이 복셀(Louis Vaux-celles, 1870 - 1943)에게 살롱도톤(Salon d'Automne)에 출품된 브라크의 작품 '레스타크의 집들'을 보고 큐브(cube, 입방체)라는 단어를 언급하여 비평하였다¹¹⁾. 그 이후 큐비즘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입체파 혹은 입체주의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큐비즘 양식을 사용한 작가들을 큐비스트(Cubist)라 지칭한다.

8) 로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93), 「20세기 미술사」, 서울:열화당, p.13

9) 하요 뒤히팅, 김재웅 역(2008),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미술문화, p.9

10) H.W.젠슨, 이일 역(1988), 「서양미술사」, 서울:미진사, pp.144-156

11) 닐 콕스, 천수원 역(2003), 「입체주의」, 파주:한길아트, p.11

큐비즘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폴 세잔느(Paul Cezanne, 1839 - 1906)의 분석과 조르주 피에르 쇠라(Georges Pierre Seurat, 1859 - 1891)의 색채 분해와 아프리카 흑인 조각의 예술작품이며¹²⁾, 특히 피카소는 아프리카 흑인 조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많은 작품을 남겼다.

처음 큐비즘이 등장한 당시에는 큐비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금 큐비즘의 양식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근법적 시각으로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대상의 여러 모습들을 한 화면에 모두 그려내는 그림이다¹³⁾. 대부분의 그림이 대상을 한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린 위치에서 관찰하여 감상하는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것처럼¹⁴⁾ 시점을 정하고 있지만, 큐비즘은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정면과 측면, 아래쪽과 위쪽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자의 형태는 각각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큐비스트들은 시점마다 사물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위의 결과로 인해 대상들이 파편화된 모습들이 한 화면에 담기게 되는데 이 균질감이 큐비즘 미술의 특징이다¹⁵⁾. 즉 큐비즘은 대상의 자연형태를 요약, 단순화 시키고, 단일시점에 의한 원근법적 시각이 아닌 다시점을 이용해 한 화면에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표현¹⁶⁾ 한 것이다.

초기의 큐비즘시대에는 피카소와 브라크가 세잔느의 많은 영향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점차 자신의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

12) 김성봉(1999), 전개서, p.7

13) 오병욱(2007), 「피카소와 분석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지, 55(2), p.76

14) 김지혜(2012), 「서양미술사조 이해를 위한 인문 가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15) 오병욱(2007), 전개서, 55(2) p.76

16) 성필규(2010), 전개서, p.7

었다¹⁷⁾. 또한 피카소를 비롯한 큐비즘 미술가들은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아 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하학 구성을 발견하고, 형태분석 표현으로 큐비즘의 시작을 알렸다¹⁸⁾.

2. 큐비즘의 분류

미술 학자들은 큐비즘의 단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에드워드 F. 프라이(Edward F. Fry, 1935 - 1991)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고,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 - 1968)는 클래식 큐비즘과, 토코코 큐비즘으로 나누었다¹⁹⁾.

후안 그리(Juan Gris, 1887 - 1927)는 ‘예술과 저술’에서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으로 주요 단계를 분류하였으며, 대다수의 비평가들이 그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많은 비평가들이 적용하는 후안 그리의 분류를 통해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분석적 큐비즘

큐비즘은 1907년 피카소와 브라크의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초기의 큐비즘은 세잔느풍의 큐비즘이라고 할 만큼 세잔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로 자연은 ‘원, 원통, 원추’라고 정의 하였던 세잔느의 이론을 심화시켜 기하학적 구체, 원통형, 삼각추, 입방체 등으로 응용하여 대상을 정리하였다.

브라크는 ‘레스타크의 집들’(그림 1)에서 자연의 대상성이 뚜렷하게 남

17) 로즈메리 램버트, 이성우 역(1993), 전개서, pp.16-17

18) 이경미(2012), 전개서, pp.26-27

19) 노석준(1993), 「큐비즘(CUBISM) 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아 있고 전체가 두드러지게 단순화 되어 기하학적 질서로 대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피카소의 경우 아프리카 예술에 심취 했던 시기로 작품 <그림 2>의 ‘아비뇰의 처녀들’은 강한 대상풍의 명암을 없앤 수법으로 흑인 조각에 가까운 인물 표현과²⁰⁾ 여성의 몸을 직선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단면으로 해체하고 평면의 화면 위에 그것을 구성하였는데 이 작품이 큐비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적 큐비즘은 주제보다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분석과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주제를 선택한 다음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을 보고 모든 면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²¹⁾. 또한 색채의 질서를 위하여 검은색, 황토색, 회색과 같은 모노크롬적 색채들만 이용하였다.

1907년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에 대한 제작 형태는 파악에 있었고 본형(本形)에 근접해야 했었으며, 그것이 바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결과 화면은 수 없이 많은 선과 면으로 해체되었고, 대상의 본질을 잃어 갔지만 조형성은 성립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카소는 그의 미술에 열정적이거나 금전을 투자한 소수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품은 관습에 얽매인 회화적 환영주의의 대한 꾸준한 탐험과 질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의 그림들은 난해하고 상호관계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입문자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²²⁾. 큐비스트들의 작품은 본격적으로 형태가 세밀하게 결정화 되었고, 대상은 기하학적 단위로 해체되어²³⁾ 면과 선이 한 화면에 합해지는 특징을 보이며 분석적 큐비즘이란 말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선들이 보이는데 이는 전체 화

20) 윤미정(2006), 「큐비즘의 투명성을 적용한 전이공간 조경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21) 성필규(2010), 전개서, p.9

22) 데이비드 코링턴, 진경희 역(2003), 「큐비즘」, 파주;열화당, p.25

23) 이규리(2012), 「입체주의 플라주 아트메이커업 -과피에 플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면을 지탱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 분석적 큐비즘의 특징이 잘 나타난 예로 브라크의 <그림 3>인 ‘바이올린과 팔레트’를 볼 수 있다. 왼쪽 아래에 그려진 바이올린은 파편화 되어 있지만 현과 f-홀, 스크롤 등 암시에 의해 대상이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악기 위에는 악보가 있고 그 뒤에는 팔레트가 위치해 있으며 전체적인 색감은 바이올린의 색에 기반을 둔 갈색으로 칠해져 있다.

피카소 작품인 ‘테이블 위의 과일 그릇과 빵’(그림 4)의 다양한 면들로 된 식탁과 커튼의 기하학적인 주름들도 분석적 큐비즘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지만 다시점을 통해 대상에 리얼리티를 부여했으며,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평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고 구조를 더욱 잘 만들었으며, 형태와 색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투시할 수 있게 되는 투명성을 보였다²⁴⁾. 즉 분석적 큐비즘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시각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게 되는 ‘다시점’과 검은색, 황토색, 회색 등과 같은 모노크롬적 색채, 그리고 다시점과 중첩에 의한 투명성이다.

(1) 다시점

큐비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큐비즘 화가들은 다시점을 이용해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한 화면에 표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주의의 광선, 명암, 원근, 질감, 채색 방법들이 무시되었으며 3차원의 깊이, 공간, 입체감 등의 전통적인 표현법이 사라지게 되었다²⁵⁾. 그들의 회화는 대상 인식에 있어서 대상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관찰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관적 경향의 표현²⁶⁾이라 할 수

24) 박승수(1988), 큐비즘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5) 최예리(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큐비즘스타일패션 연구 : 2010 S/S~2013 S/S 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6) 김주희(2013),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있다.

분석적 큐비즘 초기의 다시점은 세잔느의 영향을 받아 아직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의 형태는 분명했다. 하지만 큐비스트들은 점차 자신들의 다시절적 회화 양식을 발전시켜나가며, 현실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해체된 대상이 여러 가지 작은 면들에 의해 새로 구성되어 화면은 더욱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미묘한 균형을 이루게 만들었다²⁷⁾.

브라크 작품 <그림 5>의 '라 로슈 귀용의 성'을 보면 집들은 단일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여 여러 방향의 다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언덕을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위치해 있고 성 또한 수직적으로 그림의 가장자리에 평행을 이루며 올라가는 모습이다²⁸⁾. 또한 피카소는 1909년 스페인의 에브로의 오르타에서 '오르타의 저수지'(그림 6)를 그렸는데 형태들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했으며, 그림에서의 집들은 원근법적인 선들이 각각의 집들과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대상의 실제 차원과 함께 물리적 실재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형태의 분석을 밀고 나갔다. 그들은 사물을 분석적으로 해체하기 이르렀고 사물을 단편으로 분리시키고 펼쳐놓았으며, 다른 사물들의 형태들과 섞어 놓기 시작했다²⁹⁾.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을 포함한 모든 것은 부서진 파편처럼 보이며 약간의 명암 처리된 이 파편들은 평평하게 느껴지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면의 굴곡 상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들다³⁰⁾.

대상 인식에 있어 다시점 추구는 빛의 평등한 분산, 주제의 일관성, 화

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7) 박은희(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p.347

28)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서울:마로니에북스, p.36

29) 문 철(2000),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입체주의적 효과에 관한 연구」, 미술디자인논문집, 5, p.146

30) 최은화(2014), 「입체주의 특성이 적용된 아트메이크업 작품 분석」,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면의 평면화 등으로 그 실천적 성과가 더욱 견고해 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예술론은 성공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³¹⁾, 새로운 인식의 개념을 가져왔다.

(2) 투명성

분석적 큐비즘의 투명성은 ‘투명성(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의 저자 콜린 로우(Coline Rowe, 1920 - 1999)에 의해 가시적 투명성과 현상적 투명성으로 분류되며, 가시적 투명성은 물리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유리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³²⁾. 현상적 투명성은 물리적인 성질에 의존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³³⁾ 분석적 큐비즘에서의 투명성이 이에 해당하며, 회화에서는 ‘형태의 중첩’을 통한 재구성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분석적 큐비즘에서 대상의 몇 가지 측면이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되었고, 표현되는 과정에서 중첩성이 발생하여³⁴⁾, 겹쳐진 면을 투명하게 표현한 것이 큐비스트들의 투명성이다. 겹쳐져 있어도 그 윤곽들이 상호침투, 교차하게 되어 공간속의 대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³⁵⁾, 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대상을 보기에 따라 가깝게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는 모호한 의미를 갖게 되고³⁶⁾ 배경과 대상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큐비스트의 투명성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브라크의 <그림 7>인 ‘바이올린과 꽃병’이라는 작품은 3차원적인 꽃병과 바이올린을 단편적으로 분해

31) 김성봉(1999), 전계서, p.9

32) 최진영(2000), 「중첩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과 투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33) 권미숙(2011), 「회화디자인에 표현된 투명성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34) 김성봉(1999), 전계서, p.19

35) 이경아, 박선경(2001), 전계서, p.29

36) 윤미정(2006), 전계서, p.51

한 후 그 단편의 표현을 위해 2차원인 캔버스에 표현을 했고³⁷⁾, 면의 투명성 표현에 의해 모든 것이 대비적으로 결합되어 일종의 불협화음을 연출하여 현실성을 제공하였다.

피카소의 작품 <그림 8>인 '칸바일러의 초상'에서는 대상이 더 정교하고 완전하게 분해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공간이 침투되고 투명성을 가지며 구성되어 겨우 눈과, 코, 마주잡은 두 손 정도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고³⁸⁾, 면들은 더 이상 오브제의 밀폐된 형태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고 구성의 한부분에서 다른 부분까지 자유롭게 연장되면서 입체감을 연출하였으며³⁹⁾, 미묘한 명암이 조화를 이루었다.

37) 정원호(2007), 「조르주 브라크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인타샤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38) 변중하(1985), 「피카소」, 서울;서문당, p.118

39) 이현주(2003), 「파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그림 1> 레스타르크의 집들(1908)
 (안네 간테퀴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33)



<그림 2> 아비뇰의 처녀들(1907)
 (하요 뒤호팅 저, 엄미정 역(2009),
 Pablo Picasso, p.44)



<그림 3> 바이올린과 팔레트(1909)
 (안네 간테퀴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43)



<그림 4> 테이블 위의 과일그릇과 빵(1908)
 (하요 뒤호팅 저, 엄미정 역(2009),
 Pablo Picasso, p.45)



<그림 5> 라 로슈 기용의 성(1909)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37)



<그림 6> 오르타의 저수지(1909)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39)



<그림 7> 바이올린과 꽃병(1910)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37)



<그림 8> 칸바일러의 초상(1910)
 (프란체스코 갈루치 저, 김소라 역(2007), 피카소
 : 무한한 창조 의 샘, p.54)

2) 종합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시기는 1912 - 1914년경으로 큐비즘은 일시적으로 전위미술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으며⁴⁰⁾, 조각으로 분석하는 특징보다 이미 잘린 종이를 평면에서 종합 시킨다⁴¹⁾는 뜻으로 '종합적 큐비즘'이라 명명되었다.

분석적 큐비즘에서 형태의 분석과 질서를 추구하고 색채는 배제시켰던 피카소와 브라크는 해체 작업이 절정에 달하여 대상이 완전히 파편화 되며, 사실감이 없어지자 1912년 피카소와 브라크는 추상적인 구조와 대상 사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고자 그들은 화면에 재현된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신문이나 종이, 활자, 나무조각, 무늬목, 기호 등을 붙이는 사실적 요소를 도입한 꼴라주와 빠삐에 꼴레(papier collé)등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과는 다르게 분석적이기보다는 풍부해진 색채와 질감, 심화된 평면성, 단순성, 느슨해진 분위기를 볼 수 있다.

브라크는 <그림 9>의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에서 빠삐에 꼴레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나무의 나이트가 인쇄된 벽지 세 조각을 붙였다⁴²⁾. 양쪽에 붙인 벽지는 'BAR'라는 글씨를 넣어 술집의 벽이라는 것을 표현하였고, 아래쪽에 자리한 벽지에는 포도가 함께 그려져 있는 과일 그릇과 유리잔을 그려 그것이 테이블이라는 것을 암시 하였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은 회화적 수단을 가지고 자유롭게 작업하면서 형태를 파괴하기 보다는 상징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주관적이고도 임의적인 방식의 형태를 구성하였으며⁴³⁾, 상대적으로 간결해진 화면과 이

40) 오진경(2009), 「입체주의 조형양식을 통한 인체 도자 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1) 박혜련(2014), 「파괴에꼴레를 활용한 자화상 표현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42) 이정연(2002), 「큐비즘 회화. 조각에서 공간의 특징과 그 비교 고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미지 배경의 분리 그리고 추상적으로 양식화된 화면과 대상을 환기시키는 요소 그리고 조화⁴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 큐비즘이 미친 영향은 분석적 큐비즘의 경우보다 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기하학적 추상양식은 급속히 변하던 당시의 비개인적이고 산업화된 생활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되어 급속히 국제적으로 전개 되었다⁴⁵⁾. 그러나 1914년 후기 큐비즘도 많은 신봉자를 갖게 되었으나, 1925년 경이적인 양식의 가능성들 모두가 그 창시자들에 의해 실현되어 버렸으며 잘못된 추종자들이 큐비즘의 쇠퇴를 재촉하였다⁴⁶⁾. 그러나 종합적 큐비즘의 양식은 현대미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존 골딩(John golding, 1929 - 2011)은 ‘큐비즘의 역사와 분석’이라는 책을 통해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가 갖는 조형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만 빠삐에 꼴레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꼴라쥬라고 정의 하였다⁴⁷⁾. 즉, 종이만 사용하여 그 종이의 질감이나 색채가 작품에 쓰였으면 빠삐에 꼴레가 되는 것이고, 종이만 사용하였어도 종이의 질감이나 색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재료 자체를 작품에 삽입 한 것은 꼴라쥬이다.

꼴라쥬와 빠삐에 꼴레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비교 할 수 있는 작품은 브라크의 작품들과 피카소의 <그림 10>인 바이올린이다. 이 작품을 보면 분명 신문과 그 사이에 바이올린을 그려 넣어 작품의 구성은 종이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브라크의 빠삐에 꼴레 작품과 비교 했을 때 피카소의 작

43) 윤미정(2006), 전개서, p.48

44) 최은화(2014), 전개서, p.10

45) 김소현(2005),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 繪畵의 特性에 관한 비교연구 -입체주의(1907~1916)를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46) 하지연(1993), 「입체파와 구성주의 특성을 결합한 인체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47) 최유리(2005), 「피카소의 오브제 미술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품은 단순히 종이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형적인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순수한 뼈빠에 꼴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에 꼴라쥬와 뼈빠에 꼴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꼴라쥬

꼴라쥬는 프랑스어로 ‘풀’을 의미하는 ‘colle’에서 파생되었으며,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이나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⁴⁸⁾. 이 기법의 도입은 종합적 큐비즘 시대에 큐비스트들이 화면에 재질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밀하게 나타내야 할 그림의 일부분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새로운 가치를 띠며 주목받게 되었다⁴⁹⁾.

현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꼴라쥬 표현은 큐비스트들에게 영향은 받은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꼴라쥬는 사용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일반 대중들이 만들었던 조형물에서 꼴라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⁵⁰⁾, 12세기 일본의 서예 작품인 ‘이세슈(Iseshu)’에서는 색종이를 찢어 꽃무늬, 새, 별을 붙인 후, 먹을 묻힌 붓으로 산이나 강, 구름 등을 그려 넣고 그에 어울리는 시를 적은 형태의 꼴라쥬를 볼 수 있으며⁵¹⁾, 이 작품은 현대 시대 시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큐비즘에 있어서 꼴라쥬 회화의 최초는 피카소의 ‘등나무가 있는 정물’ (그림 11)로 변형한 캔버스로 등근 탁자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카페 탁자와 의자들을 덮는데 사용하는 등나무 형태가 인쇄된 유포를 조각내어 사용하였으며, 신문지, 벽지 등의 실제적인 오브제를 부

48) 안연희(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미진사, p.420

49) 이재민(1985), 「입체주의의 오브제에 있어 꼴라쥬 기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50) 최유리(2005), 전개서, p.15

51) 심로사(2009), 「섬유폴라쥬기법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착하여 회화적 환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실물을 통한 회화 그 자체의 독립된 세계를 표현하였다⁵²⁾. 또한 <그림 12>의 ‘신문을 읽는 학생’에서는 오브제들을 재조립하여 모래와 종이를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고, 신문을 암시하는 문자와 학생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이후 큐비즘은 미래주의(Futurism), 다다이즘(Dadaism), 초현실주의(Surrealism), 팝아트(Popart)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천이나 종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쇠, 유리, 생활용품부터 폐품까지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현대 작가들의 표현방식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2) 싸삐에 끌레

싸삐에 끌레란 ‘큐비즘 시대에 사용된 콜라주의 일종으로 종이만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종이는 종이 위에 그려진 이미지의 가치보다 주로 종이 자체의 질감과 색채의 가치로서 그 기능을 갖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³⁾. 피카소와는 달리 조형적인 측면을 통한 공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브라크는 피카소의 새롭게 구성적인 방법의 발견에 영감을 받아 싸삐에 끌레를 창시하였다. 대상을 다시점으로 관찰하여 해체한 후 재구성하면서 큐비스트들이 가진 문제는 어떻게 현실과의 연결을 갖느냐는 것이었고, 그 해결방법으로 등장 한것이 싸삐에 끌레이다. 콜라주가 종이 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반면 싸삐에 끌레는 종이만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큐비스트들 가운데 브라크가 시초이다. 큐비스트들은 분석적 큐비즘의 화면에서 잃어버린 구체적인 이미지를 싸삐에 끌레로 표현하여 공간적 깊이감, 색채적 특징, 물체의 질감을 강조해⁵⁴⁾ 줌으로서 이미지를 회복시켜

52) 이지은(2008),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큐비즘 적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53) 이진아(2001), 「현대미술에 있어서 콜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종이 콜라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54) 김태완(1998), 「싸삐에 끌레를 응용한 타피스트리의 표현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더욱 풍부한 조형성을 창조 할 수 있게 되었다.

빠삐에 끌레의 예로 볼 수 있는 작품은 브라크의 <그림 13>인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으로 ‘NAL’이라는 신문의 일부와, 색칠한 종이,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질러 유리잔과, 주사위를 목탄으로 그려 표현했다. 또 다른 그의 작품 ‘기타와 클라리넷’(그림 14)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의 작품으로 이전의 작품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화면 전체가 소묘식이 아니고 색감이 충만해 있으며⁵⁵⁾, 그 자체가 색감이 충만해 빠삐에 끌레가 조형의 한 요소가 아닌 그 작품의 내용을 형성하고 골판지와 벽지 등의 배합으로 정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⁶⁾.

빠삐에 끌레는 일상적인 재료들을 표현매체로 수용하며 대상화면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술적 의지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확대 되어갔으며⁵⁷⁾, 새로운 예술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표 1>에서 정리하였다.

55) 정문규(2004), 「브라크 = Braque」, 서울:서문당, p.21

56) 강주연(2003),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60년대 팝아트 까지」,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57) 정채영(2009), 「플라주 기법을 응용한 조형 도자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표 1〉 큐비즘의 분류

분류	표현기법	특징
분석적 큐비즘	다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잔느와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 · 원근법이 사라졌다. · 대상의 다양한 시점이 한 화면에 담겨 있다. · 색채들이 무시되기 시작했다.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비즘에서 투명성은 중첩에 의한 현상적 투명성이다. · 날카로운 선들이 보인다. · 배경과 대상이 하나로 합쳐졌다. · 본격적으로 회색, 갈색, 검은색 등의 모노크롬적 색채가 사용되었다.
종합적 큐비즘	플라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카소가 발견하였다. · 색채가 부활하였다. · 종이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작품에 삽입하였다. · 사용된 종이는 질감이나 색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빠삐에 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크가 창시하였다. ·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 종이는 작품에서 질감과 색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 색감이 매우 풍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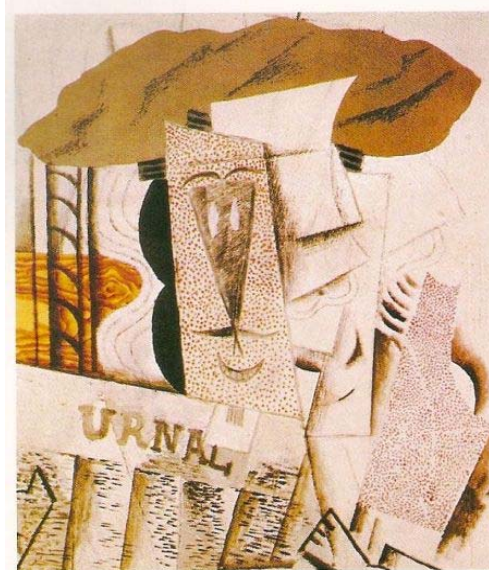
<그림 9>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1912)
(<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2014. 10. 23)



<그림 10> 바이올린(1912)
(<http://mrssoon.egloos.com/viewer/170617>,
2014. 10. 23)



<그림 11>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프란체스코 갈루치 저, 김소라 역(2007),
피카소 : 무한한 창조 의 샘, p.61)



<그림 12> 신문을 읽는 학생
(<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2014. 10. 28)



<그림 13>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1914)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83)



<그림 14> 기타와 클라리넷(1918)
(정문규 저(2004), 브라크 = Braque, p.21)

3. 큐비즘의 대표작가

큐비즘은 20세기 미술의 시작으로 이전의 원근법을 버린 혁신적인 미술로 이는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큐비즘의 화가들은 살롱 도톤과 살롱앵데팡당(SalondesIndependants)전에 참여한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 - 1941), 장 매칭제(Jean Metzinger, 1883 - 1956), 알베르 글레이즈(Albert Gleizes, 1881 - 1953),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1881 - 1955),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1885 - 1979)등 센 강변을 중심으로 모인 큐비스트들과 몽마르트의 화실을 주축으로 한 피카소와 브라크의 모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큐비즘의 창시자이며, 큐비즘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피카소와 브라크를 대표작가로 선정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1) 파블로 피카소

일반인들은 피카소의 작품을 접할 때 이상하고, 독특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피카소가 큐비즘을 통해 보여준 작품의 실험 정신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당대의 미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애호가들도 피카소를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화가', '현대미술의 출발점에 선 천재'란 수식어를 붙였다⁵⁸⁾. 그는 추상주의,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까지 다양하게 자신의 작품세계에 도입하였으며, 회화 이외에도 조각, 도자기, 판화, 삽화와 무대의상까지 자신의 예술 영역을 넓혀갔다⁵⁹⁾.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안달루시아의 항구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안달루시아인의 독립적인 성향은 열정적인

58) 김원일(2002), 「발견자 피카소 = Picasso」, 서울;동방미디어, p.23

59) 위수연(2006), 「피카소(Picasso)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꿈의 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미술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대담한 작품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897년 그는 스페인의 유명 미술학교인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고⁶⁰⁾ 피카소는 말라가와 마드리드에서 열린 여러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상을 휩쓸게 된다⁶¹⁾. 당시 피카소가 살던 바르셀로나는 북유럽적인 세기말의 예술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었고⁶²⁾, 스페인 젊은 예술가들은 니체를 논하고, 와그너의 음악에 심취했으며, 가우디 건축에 열광적이었다. 또한 모더니즘에 참여한 화가들은 이상주의에서 점묘에 이르는 파리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었다⁶³⁾. 1900년 피카소는 절친했던 친구 카를로스 카시헤마스(Carlos Casagemas, 1881 - 1901)와 함께 파리로 떠나게 되었으나 카시헤마스의 죽음으로 그의 삶과 작품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피카소의 작품 변모과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작가이자 화가인 롤랜드 펜로즈(Roland Penrose, 1900 - 1984)가 11단계인 초기 시대(1895 - 1901), 청색 시대(1901 - 1904), 장미 시대(1904 - 1906), 니그로 시대(1906 - 1909), 분석적 큐비즘 시대(1909 - 1912), 종합적 큐비즘 시대(1912 - 1917), 신고전주의(1917 - 1924), 꿈의 분석시대(1925 - 1935), 분노의 시대(1936 - 1945), 안티드 발로리스 시대(1946 - 1954), 칸느 보브나르그와 무쟁시대(1955 - 1973)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큐비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니그로 시대부터 큐비즘의 마지막인 종합적 큐비즘 시대까지 피카소의 삶과 작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60) 백지은(2014),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61) 위수연(2006), 전계서, p.7

62) 강현신(2011), 전계서, p.45

63) 상계서

(1) 니그로 시대

피카소가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흑인 미술의 발견과 그들의 춤이나, 탈, 조각 속의 원색적이고 직선적인 표현 기법에 깊은 감명을 받아⁶⁴⁾ 그린 ‘아비뇰의 처녀들’은 매우 실험적인 작품으로 이 작품이 지닌 중요성은 예술적 완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충격적인 혁명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⁵⁾. ‘아비뇰의 처녀들’에서는 화면의 주제를 이루는 인물조차도 해체될 수 있으며 배경이나 다른 대상물과 동등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체의 평면화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의 피카소는 큐비즘을 형태를 다루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세잔느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큐비즘에 들어서게 된다⁶⁶⁾.

(2) 분석적 큐비즘 시대

분석적 큐비즘 시대의 그는 대상을 더 작고 얇게 해체하였으며, 아직 흑인 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때이다. 브라크가 정물과 풍경 작품을 주로 했다면, 피카소는 정물과 풍경뿐만 아니라 인물 작품도 많이 다루었는데 자신의 첫 번째 연인 페르낭드를 모델로 하여 그린 작품 ‘페르낭드의 초상’(그림 15)을 보면 얼굴을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관찰하여 수많은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⁶⁷⁾, 흑인 미술의 영향으로 ‘아비뇰의 처녀들’과 비슷한 얼굴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후에 피카소는 자신의 다섯 번째 연인 도라를 모델로 하여 피카소는 1937년 <그림 16>의 ‘통곡하는 여인’을 그리는데 이 작품은 얼굴의 형태와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코와 눈은 왼쪽과 오른쪽 측면으로 구성되는 형태까지 다시점을 발전시키게 된

64) 이경미(2012), 전개서, p.15

65) 임경옥(2000),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66) 최례행(1988), 「피카소(Pablo Picasso)와 초기 입체파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67) 윤은경(2003), 「Cubism에 있어 Cézanne의 조형이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다.

1911년 피카소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 왔는데 동거하던 페르낭드와 결별하고 새 연인 에바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⁶⁸⁾으로 피카소가 큐비즘을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절대적인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 활동을 뒷받침해 주었다.

(3) 종합적 큐비즘 시대

피카소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분석화 한 회화는 결국 대상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12년 그는 해결방법으로 물감 이외에 이질적인 재료를 도입하는 꼴라주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것이⁶⁹⁾ 종합적 큐비즘의 시작이 된다.

그해 그는 쇠판, 끈, 철사로 생애 첫 열린 형태의 구성물 ‘기타’를 제작하였고, 음악적인 주제에 빠져 있었던 피카소는 기타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의 기타시리즈 중 하나인 1913년의 ‘기타’(그림 17)를 보면 분석적 큐비즘에서 사라졌던 형태와, 색채를 발견 할 수 있는데, 붉은색과 보라색 등 사라졌던 색채들을 모래와 다양한 물질에 섞고 종이 등을 풀로 붙여 마치 하나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처럼 사용하여 그림을 구성했다⁷⁰⁾.

2) 조르주 브라크

브라크는 1882년 5월 13일 파리 아르장퇴이유(argenteuil)에서 태어나 아마추어 미술가로 주택도색업자이자 장식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⁷¹⁾.

피카소가 삼차원적 형식에 대한 관심으로 큐비즘을 해석했다면 브라크의

68) 위수연(2006), 전계서, p.11

69) 임경옥(2000), 전계서, p.14

70) 안네 간테퓨터 트리어, 김광우 역(2008), 전계서, p.76

71) 김소현(2005), 전계서, p.13

접근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입체주의 창조과정에서 드러난 회화적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조' 하는 것이었다⁷²⁾.

브라크의 큐비즘에 대한 접근은 피카소에 비해 회화적이고 시적이었으며, 큐비스트들 가운데 그만이 광선의 환기적인 속성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다⁷³⁾.

브라크는 세잔느의 회화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면서 대상의 존재성을 기본적인 형태와 양에 의해 포착하기 시작하였다. 평면적인 도형의 결합으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한 초기 큐비즘의 발전을 통해 대상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대상을 재구성하였다⁷⁴⁾.

1907년 유명한 화상이자 미술평론가인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Daniel-Henry Kahnweiler, 1884 - 1979)에게 레스타크에서 그린 그림들을 판매하였고, 그의 소개로 몽마르트에 위치한 바토 라브아르(Bateau-Lavoir)라는 예술가들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피카소를 만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브라크는 레스타크에 머물면서 터득한 세잔느 이론의 이해와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서 영향을 받아 그는 다시 누드를 주제로 새로운 양식을 찾게 되고 서서히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⁷⁵⁾.

(1) 야수파 시대

브라크는 초기의 야수파 화가로 풍경화를 주로 그렸으며, 불꽃같은 색채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림 18>의 '안트워프 항'에서 형태는 소중하게, 원색의 향현에 빨려들어 가지 않으며, 흰색을 세심하게 쓴 것은 다른 야수파

72) 정원호(2007), 전개서, p.33

73) 김광희(2003), 「후기 인상주의가 20세기초 서양회화에 미친 영향 -세잔느, 고갱의 회화세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74) 이규리(2012), 전개서, p.27

75) 김소현(2005), 전개서, p.20

의 화가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개성이 있다⁷⁶⁾. 2년의 짧은 야수파 생활을 마치고 브라크는 피카소와 만나게 되는데, 그는 피카소의 작업실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아 1908년 경 ‘앉은 나무’와 ‘나무’등을 그리게 된다. 이 작품들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큐비즘의 시대를 열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2) 분석적 큐비즘 시대

분석적 큐비즘 시대의 작품 주제는 인물, 컵, 파이프, 악기와 같은 일상적인 물체에 한정되어 있다. 물체나 인체를 하나의 고정 시점에서 보는 투시법적 공간은 파괴되고 복합적인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의 기억, 개념, 지식이 화면에 그려지게 된 것이다⁷⁷⁾.

브라크의 1909년 작품인 ‘만들린과 여인’(그림 19)은 타원형의 캔버스에 그린 최초의 큐비즘 회화다. 후에 피카소도 이러한 브라크의 영향을 받아 ‘등나무가 있는 정물’에서 타원형의 캔버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여인과 악기는 동등하게 취급되었고, 모노크롬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브라크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 얼마 안 되어 피카소도 이러한 주제의 그림을 그렸다⁷⁸⁾.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브라크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종합적 큐비즘 시대

콜라주를 발견하여 작품에 활용한 것이 피카소라면 뼈빠에 꼴레를 발명한 것은 브라크이다.

분석적 큐비즘 시기에 그의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과 다른 점을 거의 찾

76) 정문규(2004), 전계서, p.8

77) 백중연(2004), 「책거리 그림과 브라크 그림의 미술교육적 의미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78) 안네 간테퓨터 트리어, 김광우 역(2008), 전계서, p.48

아보기 어려웠으나 <그림 20>의 '포르투갈의 사나이'에 숫자나 문자를 도입하면서 비슷하지만 브라크만의 요소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작품은 브라크의 종합적 큐비즘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1912년 브라크는 어느 가게 앞을 지나다 떡갈나무 결의 벽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 세 토막으로 잘라 종이 위에 붙이고, 사이사이에 목탄으로 파이프, 만돌린, 테이블의 표면을 소묘하여 문자를 넣었는데⁷⁹⁾, 이 작품이 '그래프 카드가 있는 구성'(그림 21)이다. 이 작품은 브라크가 실물을 그림에 도입하여 회화의 새로운 조형의 차원은 끌어올린, 주목할 작품이었고⁸⁰⁾, <그림 22>의 '바흐의 아리아'에서는 다시점에서 벗어나 훨씬 단순화한 추상화를 보여 준다. 뼈빠에 꼴레의 방법에 의해 구도는 명쾌해지고, 화면의 명암 대비도 강렬해 졌으며, 물감은 전혀 쓰지 않은 작품이다⁸¹⁾.

브라크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가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두부에 손상을 입었던 그는 작품 활동을 쉬면서 자신의 회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후 그는 큐비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에서 큐비즘의 특성은 얼어지게 되었다.

79) 안네 간테튀터 트리어, 김광우 역(2008), 전게서, p.48

80) 정문규(2004), 전게서, p.18

81) 상게서, p.21



<그림 15> 페르낭드의 초상(1909)
 (안네 간테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44)



<그림 16> 통곡하는 여인(1937)
 (<http://blog.naver.com/khs8000/20012001922>, 2014. 11. 01)



<그림 17> 기타(1913)
 (안네 간테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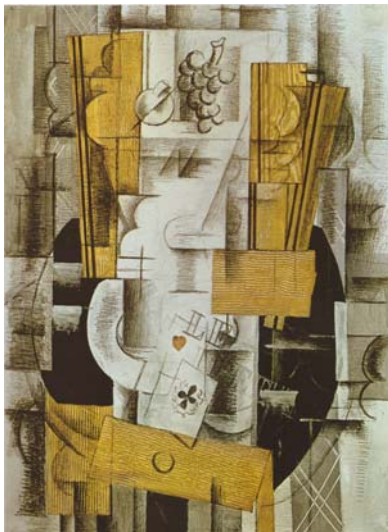
<그림 18> 안트워프 항(1906)
 (정문규 저(2004), 브라크 = Braque, p.8)



<그림 19> 만돌린과 여인(1910)
 (안네 간테워러 트리어 저,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p.49)



<그림 20> 포르투갈의 사나이(1911)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17)



<그림 21> 그래프 카드가 있는 구성(1912)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19)



<그림 22> 바흐의 아리아(1914)
 (정문규(2004) 저, 브라크 = Braque, p.20)

III. 작품제작

1. 제작 의도 및 방법

21세기는 창의력과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있으며,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그러한 작품들이 요구되고 있다. 장르와 장르의 혼합은 독특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며, 이전의 것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분야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큐비즘은 큐비즘 이후 나타난 다양한 현대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큐비즘의 표현 기법은 현대의 작가들에 의해 계속 재해석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혼합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조 중 하나인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에 있어서 독창성 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작품 모티브는 큐비즘 회화를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네 가지 표현기법인 다시점, 투명성, 꼴라쥬, 빠삐에 꼴레로 각각 분류한 뒤, 대표 작가로 선정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표 2>의 작품 디자인 계획을 세우고 난 후 메이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 8가지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 방법은 큐비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이미지 스케치 후 아쿠아 물감과, 색종이, 인쇄된 종이, 잡지, 종이 꽃, 골판지, 색모래, 깃털, 다양한 굵기의 와이어, 종이 노끈 등을 사용하여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메이크업에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였다.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

작품명	표현기법		모티브 작품	화가	색채	일러스트
작품 I	분석적	다시점		피카소	White Black Red Brown	
작품 II				브라크	Yellow, Purple Yellow-green Pink, Orange Indigo	
작품 III	큐비즘	투명성		피카소	Brown Black	
작품 IV				브라크	Yellow Orange Sky-blue	
작품 V	종합적	콜라주		피카소	Black Yellow Pale-Purple Blue Green White	
작품 VI				피카소	Brown Black Gold	
작품 VII	큐비즘	빠빠에 꼴레		브라크	Brown Yellow Gray	
작품 VIII				브라크	Brown Black Ivory Pink Red	

2. 작품제작

1) 작품 I - Dual Personality(이중인격)

(1) 작품설명

작품 I <그림 23>은 큐비즘의 표현기법 중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된 대상의 모습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게 되는 다시점에 해당하는 피카소의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을 모티브로 하여 Dual Personality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오른쪽에는 사람의 정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델의 피부색에 맞추어 음영메이크업을 하였다. 왼쪽에는 이목구비라인을 따라 검은색의 라인을 사용함으로써 측면의 얼굴을 형상화하였고, 오른쪽의 피부색과 다른 흰색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양쪽의 확연한 대비를 주었으며 한 얼굴에 있지만 전혀 다른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 3>은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로 작품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모델의 피부톤과 맞춰 표현한다.
- ② 오른쪽 얼굴에 눈 부분에 브라운 계통의 색으로 메이크업 해주고 아이라인으로 정면 얼굴을 완성한다.
- ③ 아이브로우 펜슬로 사람의 얼굴 옆 라인을 이마부터 코 옆 라인, 턱 끝을 따라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 ④ 가이드 라인 안쪽 부분을 흰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채워준다.
- ⑤ 검은색의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오른쪽과 왼쪽 눈썹, 왼쪽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세필붓으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진하게 그려준다.
- ⑥ 왼쪽 얼굴에 있는 입술을 붉은색의 립스틱으로 마무리한다.

<표 3> 작품 I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I 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아비뇰의 처녀들
	화가
	피카소
작품 I 의 스케치	
	
표현기법	다시점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아쿠아 물감, 립스틱
색채	



<그림 23> 작품 I - Dual Personality

2) 작품 II - World of concentric(동심의 세계)

(1) 작품설명

작품 II <그림 24>는 네모난 모양의 집을 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린 것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린 브라크의 큐비즘 작품 중 라 로슈 귀용의 성을 모티브로 진행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작품 디자인 이미지를 작성하였다.




브라크의 작품은 색채가 한정되어 있지만 작품 II는 주제인 World of concentric에 맞춰 노랑, 보라, 빨강, 파랑, 분홍 등 아이들에게 선호도 높은 색상으로 꾸며진 장난감의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라 로슈 귀용의 성'의 특징인 다시점 기법으로 그린 다면체를 활용하였다. 왼쪽은 다면체 활용을 모델의 눈가에서 시작하여 입 꼬리 끝까지, 오른쪽은 눈을 위주로 하여 표현하였다. 얼굴에 다양한 색이 사용 됐기 때문에 입술 색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흐릿하게 만들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해준다.

작품 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 ② 흰색 펜슬로 가이드 라인을 잡아준다.
- ③ 연한색인 흰색 아쿠아 물감부터 진한색인 남색 아쿠아 물감 순으로 세필붓을 사용하여 다면체의 라인을 그린다.
- ④ 위와 같이 연한색부터 진한색의 순서로 다면체를 채운다.
- ⑤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색을 없애준다.

<표 4> 작품 II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II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라 로슈 기용의 성
	화가
	브라크
작품 II의 스케치	
	
표현기법	다시점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아쿠아 물감
색채	



<그림 24> 작품 II - World of concentric

3) 작품 III - Portrait of a bride(신부의 초상)

(1) 작품설명

작품 III(그림 25)은 피카소의 투명성에 해당하는 ‘칸바일러의 초상’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칸바일러의 초상’은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배경과 인물의 구분이 가지 않는 투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본 연구자는 해체 시 나타나는 큐비즘 특유의 입방체 모양을 배경과 인물에게 사용하여 투명성 특징을 나타냈다.

분석적 큐비즘의 색채인 갈색과 황토색 등의 포스터 칼라를 사용하여 배경을 제작하고, 모델에게도 검은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배경과 같은 색의 아쿠아 물감을 사용한다. 또한 Adobe Photoshop CC 201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헤어에 배경과 같은 이미지를 합성하여 배경과 헤어, 모델의 얼굴이 일치하게 되는 투명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주제가 신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혼식에서의 다이아몬드반지를 의미하는 큐빅을 사용하여 모델의 눈에 아이라인처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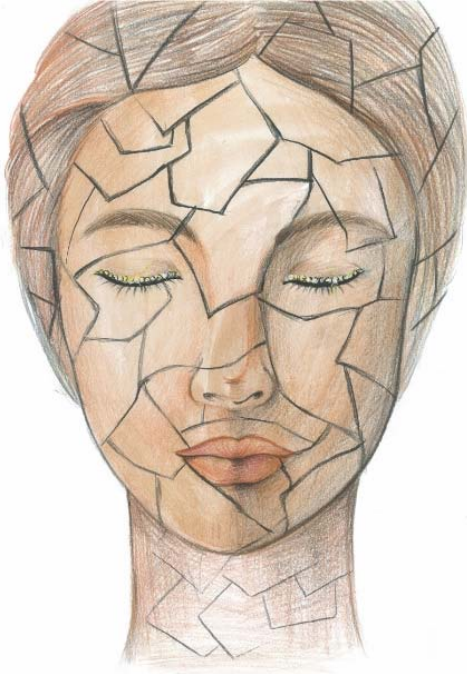

<표 5>는 작품III의 디자인 이미지이며, 작품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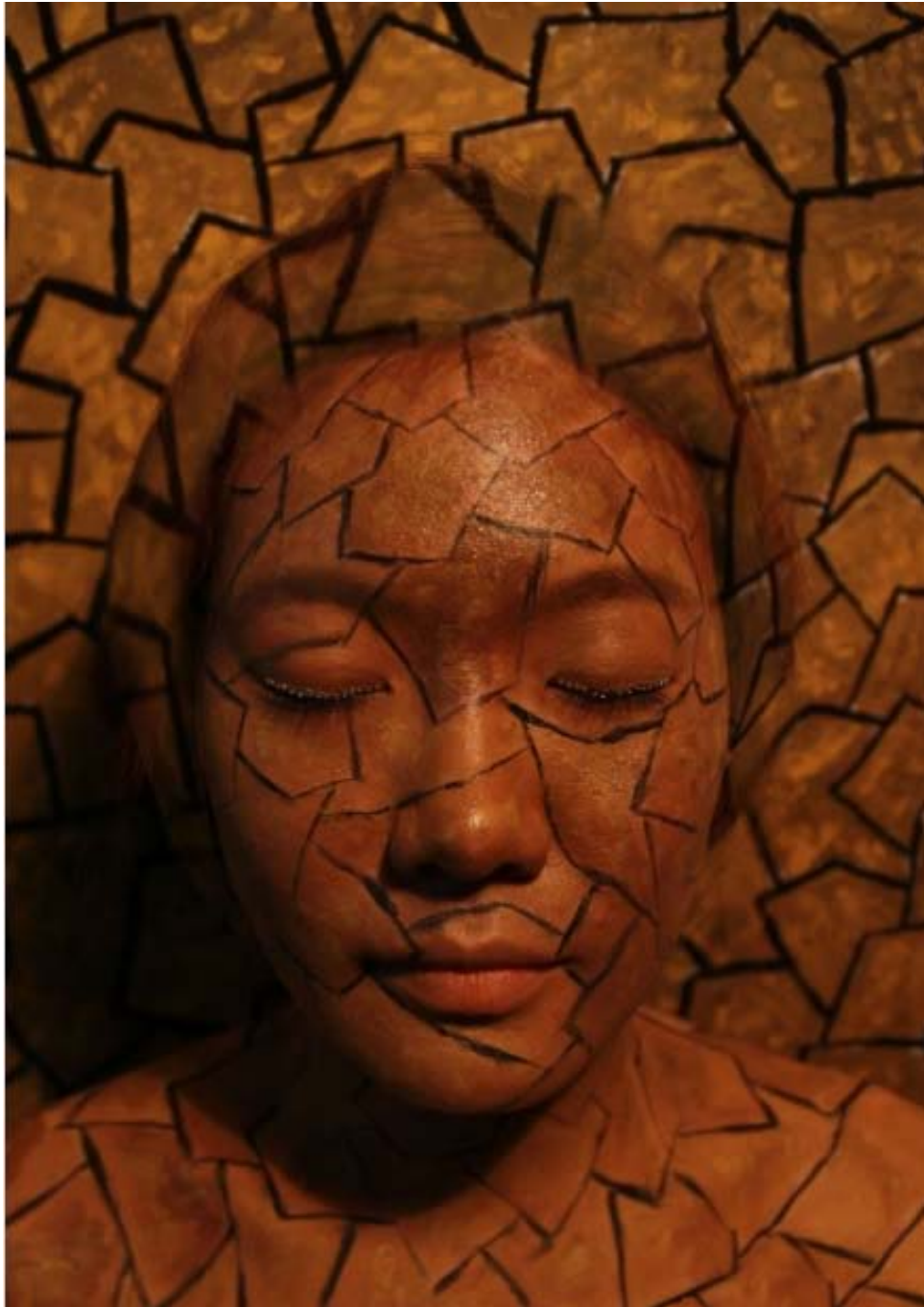
(2) 작품방법

- ① 흰색의 펜슬로 모델 얼굴에 입방체 모양으로 가이드 라인을 그려준다.
- ② 황토색 아쿠아 물감으로 선 안쪽면부터 채워준다.
- ③ 갈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명함을 준다.
- ④ 검은색의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세필붓으로 가이드 라인을 따라 그려준다.
- ⑤ 속눈썹에 맞춰 큐빅을 붙인다.

- ⑥ Adobe Photoshop CC 201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의 머리에 배경과 같은 디자인을 합성하여 배경과 모델, 헤어에 같은 입방체 패턴이 나오도록 통일감을 준다.

<표 5> 작품Ⅲ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Ⅲ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칸바일러의 초상
	화가
	피카소
작품 Ⅲ의 스케치	
	
표현기법	투명성
재료	아쿠아 물감, 큐빅
색채	



〈그림 25〉 작품 III - Portrait of a bride

4) 작품 IV - Parrot(앵무새)

(1) 작품설명

작품 IV인 <그림 26>은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꽃병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

본 작품의 주제는 Parrot으로 <표 6>에 작품 디자인 이미지의 색채 표를 보면 주로 사용된 색채는 앵무새의 노란색과, 주황색, 연한 파랑색 등이다.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꽃병은 투명성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모델에게 종이 노끈과 앵무새에게 많이 나타나는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날개를 의미하는 형태를 눈에 표현하고 완성된 그림을 프린트해 입방체의 모양으로 조각내어 해체한다.

브라크가 작품에서 의미하고자 하였던 해체와 재조합은 모델의 조각난 얼굴을 다시 모델의 얼굴에 붙여 표현하였으며, 겹쳐져 뒤에 있는 것은 안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큐비즘의 중첩에 의한 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각낸 부분 중 눈썹부분에 해당하는 조각을 모델의 눈썹에 붙여 지금의 모델과 조각난 부분의 모델 눈썹이 겹쳐지는 투명성을 나타내었다.

작품 IV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모델의 피부톤과 맞게 표현한다.
- ② 주황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표현 한다.
- ③ 노란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주황색의 라인을 따라 얇게 그려주고 입술에도 같은 색상으로 칠한다.
- ④ 눈썹에는 노란색, 하늘색, 주황색의 종이 노끈을 사용하여 눈썹에 붙인


다.

⑤ 사진을 찍은 뒤 프린트 하여 입방체 모양으로 조각낸 후 적당한 위치에 재조합하고 조각낸 눈썹부분은 모델의 눈썹위치와 맞게 붙인다.

⑥ 모델의 눈에는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사진과 같은 앵무새의 날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그린다.

⑦ 작품의 조화를 위하여 입술의 색상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색감을 연하게 한다.

<표 6> 작품Ⅳ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Ⅳ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바이올린과 꽃병
	화가
	브라크
작품 Ⅳ의 스케치	
	
표현기법	투명성
재료	종이노끈, 아쿠아 물감
색채	



<그림 26> 작품 IV - Parrot

5) 작품 V - Gentle breeze(산들바람)

(1) 작품설명

작품 V인 <그림 27>은 피카소의 작품 기타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그는 이 작품에서 모래에 색채를 입혀 분석적 큐비즘에서 사라졌던 색을 다시 나타나게 하였고, 외곽선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피카소가 색모래를 사용하여 작품에 색감을 부여 했듯이 본 작품에서도 색모래를 사용하여 작품에 색채를 나타내고,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Gentle breeze의 주제에 맞게 곡선으로 유연하게 흐르는 바람의 이미지를 부여 하였다. '기타'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종이는 작품 V에서 색종이를 사용하여 표현한 건물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는 갑갑한 빌딩 숲 위에 산들바람이 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이미지 디자인(표 7)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작품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모델의 피부톤에 맞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표현을 한다.
- ②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눈썹과 눈에 물결 형태로 그려주고 눈과 눈썹 사이에 아이라이너로 섹션을 나눈다.
- ③ 색모래를 사용하여 아이라인의 빈 공간을 채운다.
- ④ 얼굴에 맞춰 종이를 자른 후 풀을 사용하여 붙인다.
- 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입술색을 연하게 한다.

<표 7> 작품 V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V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기타
	화가
	피카소
작품 V의 스케치	
	
표현기법	콜라주
재료	색모래, 아이라인, 색종이
색채	



<그림 27> 작품 V - Gentle breeze

6) 작품 VI - Freedom and redemption(자유와 구속)

(1) 작품설명

작품 VI(그림 28)은 피카소의 등나무가 있는 정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그는 등근 모형의 캔버스를 사용하였고 그 들레에 밧줄을 들렀으며, 벽지나 신문 등을 붙여 실물 그 자체를 회화에 표현하였다.

밧줄을 모델의 얼굴에 두르고, 얼굴에 새장을 씌워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하였고, 깃털을 머리에 붙여 직접적으로는 새를 간접적으로는 자유를 표현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얼굴에 FREE라고 쓰여진 종이를 프린트하여 붙여 피카소가 꼴라주를 통하여 작품에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작품에 나타내었다.

<표 8>은 작품 VI의 작품 이미지 디자인이며,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에 맞춰 피부표현을 한다.
- ② 케이크타입의 갈색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준다.
- ③ 아이보리색의 새도우로 눈 전체를, 포인트로 갈색의 새도우를 사용하여 음영 메이크업을 한다.
- ④ 검은색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그린다.
- ⑤ 프린팅 된 종이를 붙인다.
- ⑥ 깃털을 핀으로 고정하여 헤어를 표현한다.
- ⑦ 밧줄을 얼굴라인에 맞춰 두른다.
- ⑧ 2mm와이어와 3mm와이어로 미리 만들어 둔 새장을 머리에 씌운다.
- ⑨ 입술에는 누드톤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표 8> 작품 VI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VI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등나무가 있는 정물
	화가
	피카소
작품 VI의 스케치	
	
표현기법	콜라주
재료	와이어, 깃털, 바늘, 프린팅 종이
색채	



〈그림 28〉 VI - Freedom and redemption

7) 작품 VII - Springtime in bee(꿀벌의 봄날)

(1) 작품설명

작품 VII(그림 29)은 브라크가 나무결 무늬의 벽지를 붙이고, 색채와 실물을 회화에 도입하여 완성한 작품인 '그라프 카드가 있는 구성'을 모티브로 하였다. 주제는 Springtime in bee이며, 본 작품의 모든 구조물은 종이로 되어있다.

브라크가 나무결과 그 색을 사용하여 작품 제작을 하였듯이 본 연구자 또한 골판지의 색상과 느낌으로 꿀벌의 줄무늬를 표현하였다.

<표 9>와 같이 작품 이미지를 스케치 한 뒤 모델의 얼굴에 노란색과 갈색의 아쿠아 물감을 번갈아 가며 꿀벌 패턴으로 그리고, 노란색의 골판지에 갈색의 포스트컬러로 같은 패턴을 만들어 머리에 두른 뒤, 브라크가 자신의 작품에 문자를 그려 넣었듯이 작품 VII에서도 봄을 상징하는 Spring과 Flower를 그려 넣었으며, 종이꽃을 얼굴에 붙였다.

작품 V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노란색 골판지에 갈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칠하여 장식구조물을 만든다.
- ② 꿀벌패턴을 그리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화이트 펜슬로 그린다.
- ③ 연한색인 노란색 아쿠아 물감을 먼저 한 칸씩 건너 띄워 가이드 라인 안쪽을 채우고, 진한색인 갈색 아쿠아 물감을 빈 공간에 메꿔준다.
- ④ 입술에는 노란색의 아쿠아 물감으로 칠해준다.
- ⑤ 오른쪽 볼에 종이로 만들어진 꽃을 위치에 맞춰 붙인다.
- ⑥ 미리 만들어둔 골판지의 헤어 장식을 머리에 둘러준다.

<표 9> 작품 VII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VII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그라프 카드가 있는 구성
	화가
	브라크
작품 VII의 스케치	
	
표현기법	빠빠에 꼴레
재료	골판지, 포스터칼라, 종이 꽃, 아쿠아물감
색채	



<그림 29> 작품 VII - Springtime in bee

8) 작품 VIII - Resurrection of the Queen(여왕의 부활)

(1) 작품설명

작품 VIII인 <그림 30>은 Resurrection of the Queen이라는 주제로 브라크의 작품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을 모티브로 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리기 보다는 주제 자체를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이 작품은 잡지에서 작은 화장품 사진들을 자르고 그것을 눈과 눈썹, 입술 등에 색채 배열을 하여 새도우, 아이브로우, 립스틱을 표현하고 큰 화장품의 사진들은 잘라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었으며 속눈썹 또한 검은색 종이로 만들어 작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 뼈빠에 꼴레 작품이다.

<표 10>은 작품 VIII의 작품 디자인 이미지이며,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작품방법

- ① 잡지에서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새도우,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파우더 등의 사진을 자른다.
- ② 모델의 피부톤에 맞추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표현을 한다.
- ③ 갈색 계열의 새도우와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기본적인 음영 메이크업을 한다.
- ④ 잘라둔 잡지 중 아이브로우 색상에 맞는 사진을 눈썹의 형태로 잘라 눈썹 위치에 맞춰 붙인다.
- ⑤ 새도우에 해당하는 잡지의 사진을 눈 사이즈에 맞게 잘라 색채 배열을 하여 붙인다.
- ⑥ 입술 부분 또한 립스틱 사진을 잘라 붙이고 블랙 아쿠아 물감으로 립라

인을 그려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⑦ 큰 화장품 사진들은 업스타일처럼 만들어 이마라인과 헤어라인에 연결 시켜주고, 입술모양의 사진을 잘라 중세시대의 '뷰티 스팟'처럼 붙여준다.

<표 10> 작품 VIII - 작품 디자인 이미지

작품 VIII의 모티브 작품	
	작품명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
	화가
	브라크
작품 VIII의 스케치	
	
표현기법	빠빠에 콜레
재료	잡지, 종이 속눈썹
색채	



<그림 30> 작품 VIII - Resurrection of the Queen

IV. 결 론

메이크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매우 필요로 하는 장르이며, 예술적인 부분이 메이크업 작업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에게는 기술성만이 부각되는 분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술적이며 감각적인 큐비즘 회화를 활용한 작품 제작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큐비즘과의 결합으로 메이크업의 예술적 가치 창출과 독창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 제시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미술사조인 큐비즘에 대한 전문서적과 선행논문 및 다양한 문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표현기법과 회화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다시점과 투명성, 종합적 큐비즘에서는 폴라쥬와 빠삐에 끌레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대표 작가 2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2차원 적인 스타일화로 표현하여 시각화 한 후 모델에게 직접 메이크업 하여 3차원적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큐비즘은 기존 회화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된 미술운동으로, 원근법을 무시한 다시점이 생겨났으며, 그로인해 초기의 큐비즘은 다면체의 형태와 모노크롬적 색채로 표현됐다. 이후 큐비즘은 대상 해체의 과정을 거쳐 중첩에 의한 투명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에 이르러서는 과도한 해체가 대상을 모호하게 하였고, 그 해결방법으로 큐비스트들은 폴라쥬와 빠삐에 끌레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큐비즘은 시대적, 회화적 분류에 따라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분석적 큐비즘은 다시점과 투명성, 종합적 큐비즘은 폴라쥬와 빠삐에 끌레로 분류 할 수 있다. 다시점은 다양한 시점

이 한 화면에 담겨지는 것이 특징이고, 투명성은 가시적 투명성이 아닌 현상적 투명성으로 중첩되어 있지만 사실상 '존재한다'는 것이 큐비즘에서의 투명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라주와 빠삐에 끌레는 같은 종이를 사용하여도 콜라주에서는 그 종이 자체를 사용하였고 빠삐에 끌레에서는 종이의 질감과 색채만을 사용한 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표작가로는 큐비즘을 창시한 피카소와 브라크로 선정하였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 '칸바일러의 초상', '기타', '등나무가 있는 정물', 브라크의 '라로슈 기욤의 성', '바이올린과 꽃병', '그라프 카드가 있는 구성', '파이프, 유리잔, 주사위 그리고 신문'이라는 작품을 통해 분석적 큐비즘은 다시점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다면체와 해체, 재조합이 투명성에 영향을 미쳐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화면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종합적 큐비즘에서는 다시 시작된 색채의 표현, 문자의 도입, 단순화된 구조가 특징이라는 것을 분석하였다.

넷째, 대표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표현기법에 따라 작품 8가지를 제작하였다.

작품 I, II는 표현기법 중 다시점을 기초로 하여 사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 I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본 사람의 정면과 측면 모습을 분할하여 한 사람의 얼굴에 여러 방향을 담아내는 다시점의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작품 II는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다시점 표현 방법 중 물체의 모습을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았을 때 물체의 모든 모습을 한꺼번에 그려내는 방식을 차용하였다. 즉 이 작품은 다양한 색상의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얼굴에 표현된 모형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다면체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작품Ⅲ, Ⅳ는 투명성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품Ⅲ은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 투명성의 특징인 배경과 모델이 하나의 형체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델과 배경 모두 해체하듯이 입방체 모양으로 나눈 뒤, 분석적 큐비즘의 대표적인 색상 중 하나인 갈색으로 표현하였다. 작품Ⅳ는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해체와 재조합 과정에서 겹쳐진 면은 투명하게 표현 하였다는 작품의 의미를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모델의 눈썹 위에 프린팅 된 모델의 눈썹을 잘라 붙이며 메이크업만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투명성을 나타내었다.

작품Ⅴ, Ⅵ은 모두 피카소의 꼴라주 작품이다.

피카소는 꼴라주의 발견자로 브라크의 작품에서는 꼴라주의 형태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피카소는 꼴라주를 시작으로 종합적 큐비즘에 접어들었다.

작품Ⅴ의 주제는 Gentle breeze로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웨이브의 형태를 그려 바람을 형상하였다. 피카소는 색모래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에 색채를 부여하였고, 본 연구자는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색모래를 사용하여 산들바람의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Ⅵ 피카소의 첫 번째 꼴라주 작품인 ‘등나무가 있는 정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피카소는 캔버스와 신문지, 유포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작품의 주제는 ‘탁자’라는 것을 표현 하였듯이 작품Ⅵ 또한 직·간접적으로 주제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작품Ⅶ, Ⅷ은 빠삐에 꼴레를 발명한 브라크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

작품Ⅶ은 브라크가 본인의 작품에 떡갈나무의 결을 잘 모방한 벽지를 붙인 것은 그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작품Ⅶ 또한 골판지의 결은 꼴벌의 줄무늬 패턴을 의미하며, 갈색의 색상을 부여하여 꼴벌의 색상인 노란색과 갈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Ⅷ은 여러 가지 화장품의 형태를 브라크의 작품에서처럼 중첩시켰으며, 화장품의 색상을 그대로 메이크업에 반영하여 작품에 색채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 제작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통하여 메이크업과 큐비즘의 표현기법을 결합하는 것은 메이크업 작품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시도는 메이크업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꼴라주와 빠삐에 꼴레를 통하여 다양한 재료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분해와 재조립이 거듭되는 큐비즘을 메이크업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큐비즘에 대한 자료는 많으나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분석적 큐비즘에 비해 종합적 큐비즘시기가 길게 유지 되지 않아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꼈으며, 큐비즘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브라크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연구를 깊이 진행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큐비즘의 표현기법과 대표 작가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지만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미술사조를 메이크업 분야와 결합하여 메이크업 분야를 더욱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주연(2003),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팝아트 까지”,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희(2003), “후기 인상주의가 20세기초 서양회화에 미친 영향 - 세잔느, 고갱의 회화세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봉(1999), “입체파의 조형성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2005),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 繪畵의 特性에 관한 비교연구 - 입체주의(1907~1916)를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일(2002), 발견자 피카소=Picasso, 서울:동방미디어
- 김주희(2013),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연구-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2), “서양미술사조 이해를 위한 인문 가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완(1998), “빠삐에 꼴레를 응용한 타피스트리의 표현 연구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숙(2011), “화훼디자인에 표현된 투명성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그대는 플립, <http://mrsoon.egloos.com/viewer/170617>, (검색일자2014. 10. 23)

- 나무사랑, <http://m.blog.daum.net/hyeanj/7969065#>, (검색일자 2014. 10. 23)
- 노석준(1993), “큐비즘(CUBISM) 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닐 콕스, 천수원 역(2003), 입체주의, 파주;한길아트
- 데이비드 코링턴, 전경희 역(2003), 큐비즘, 파주;열화당
- 토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93), 20세기 미술사, 서울;열화당
- 문철(2000),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입체주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5, pp.131-161
- 박승수(1988), “큐비즘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10(3), pp. 342-352
- 박혜련(2014), “파피에콜레를 활용한 자화상 표현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은(2014),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연(2004), “책거리 그림과 브라크 그림의 미술교육적 의미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종하(1985), 피카소, 서울;서문당
- 성필규(2010), “분석적 큐비즘 회화의 기하학적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로사(2009), “점유플라주기법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름다운 동행, <http://blog.naver.com/khs8000/20012001922>, (검색일자 2014. 11. 01)
- 안네 간테튀러 트리어, 김광우 역(2008), 입체주의, 서울:마로니에북스
- 안연희(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미진사
- 오병욱(2007), “피카소와 분석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 55(2), pp. 73-80
- , “피카소와 종합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지, 55(4), pp. 98-105
- 오진경(2009), “입체주의 조형양식을 통한 인체 도자 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정(2006), “큐비즘의 투명성을 적용한 전이공간 조경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2003), “Cubism에 있어 Ce'zanne의 조형이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수연(2006), “피카소(Picasso)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꿈의 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박선경(2001),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연구-20세기 후반 패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패션디자인학회, 1(1), pp. 21-52
- 이규리(2012), “입체주의 꼴라주 아트메이크업-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2002), “큐비즘 회화. 조각에서 공간의 특징과 그 비교 고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민(1985), “입체주의의 오브제에 있어 꼴라주 기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8),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큐비즘 적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아(2001), “현대미술에 있어서 꼴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종이 꼴라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섭(2003), “큐비즘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디자인과의 상관성 (1)”, 대구대학교 디자인연구소, pp.89-104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옥(2000),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호(2007), “조트주 브라크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 인타샤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채영(2009), “꼴라주 기법을 응용한 조현 도자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우인(2013),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례행(1988), “피카소(Pablo Picasso)와 초기 입체파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예리(20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큐비즘스타일패션 연구 : 2010 S/S~2013 S/S 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2005), “피카소의 오브제 미술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화(2014), “입체주의 특성이 적용된 아트메이크업 작품 분석”, 광주
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영(2000), “중첩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과 투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요 뒤히팅, 김재웅 역(2008),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미술문
화
- 하지연(1993), “입체파와 구성주의 특성을 결합한 인체표현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 김성남(2013), “큐비즘 회화를 응용한 조형작품연구”, 한국디자
인문화학회, 19(2), pp.623-637
- H.W. 쟈슨, 이일 역(1988), 서양미술사, 서울;미진사

ABSTRACT

A Study on the Make-up Works Applying Cubism Images

Lee, Jong A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contemporary people encounter new and diverse cultures easily in their daily life.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ough many people had spent their time in labor, as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boost have been made, with increase in recreation time and income, people's perception on the art has changed and concern for culture and art has been grown and various culture and art have been created. Among them, hybrid phenomenon, mixed between genres, it is one of concepts to express various changes and is considered as the core of the 21st Century's civilization strategies. And the hybrid phenomenon is generally seen in the combination with the art.

Cubism, an art trend led by Picasso and Braque between 1907 and 1914, shows its combination in various genres. The fields applied most frequently with Cubism are architecture, art and fashion, and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and studies. In make-up, there have

some cases of combination with Cubism but most of them are related to Picasso, and studies about Braque and his expressions are few. And for perception on make-up, techniques are more important than its artistry. However, make-up requires both techniques and artistr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rtistry in make-up through combination with Cubism and suggesting creative make-up designs through various attempts.

In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concepts focusing on books, articles and internet materials about Cubism, its painting features and expressional techniques were classified. And then, selecting the most influential Cubists, inspired from their works, total 8 make-up works were created.

As a result, firstly, Cubism tried to attempt multiview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revious painting which emphasized perspective drawing and used monochrome colors. In its middle-time, the objects were extremely divided, and for its solution, collage and papier colle were used.

Second, according to time and painting styles, expressional methods were studied. multiview of analytic Cubism is to contain various views in one screen, and transparency means phenomenal transparency that in spite of overlapping, things exist. Collage of comprehensive Cubism is to adhere various materials including paper while papier colle is to use paper for collage. Even though both collage and papier colle paper, papier depends on textures and colors of paper

only.

Third, for main artists, Picasso and Braque, founders of Cubism were selected and four works from each artist were studied, and ambiguities between background and object were shown due to multiview expressions and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analytic Cubism. In comprehensive Cubism, disappeared colors were introduced again and introduction of letters and simplified structure were seen.

Fourth, inspired from 8 works of both artists and according to their expressional techniques, make-up works were created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Work I, theme of 'Dual Personality', by dividing front and side of a person seen in totally different directions, multi-view technique to contain various directions in one face was used.

Work II, 'World of concentric', was inspired from a work of Braque. It was composed with a technique to paint the entire appearances of an object when seeing it in different directions not from the front, among multiview expressional techniques.

Work III, 'Portrait of a Bride' based on a painting of Picasso, in order to make background and model, feature of transparency, as one form, both model and background were divided with cubics as de-constructing all of them. Brown, one of main colors of analytic Cubism was applied.

Work IV, theme of Parrot inspired by Braque, for its meaning to express overlapped surface in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with transparency, cutting and pasting eye brow on model's own eye brow was applied to express transparency which is difficult to express with make-up only.

Work V, theme of 'Gentle Breeze', drawing waves with black eyeliner, wind was expressed. Inspired from Picasso's *Guitar*, color sand was used, and it is an attempt to express fresh and good feeling of a gentle breeze.

Work VI, inspired from *Still Life with Chair Caning*, theme of 'Freedom and Redemption', shows directly and indirectly freedom and redemption as Picasso showed his theme of 'table' directly through canvas, newspaper and oiled cotton cloth.

Work VII, inspired from Braque's work expressed with materials and colors themselves, has a theme of 'Springtime in Bee'. Texture on corrugated cardboard means stripe pattern of bee and brown shows yellow and brown, colors of bee.

Work VIII, theme of 'Resurrection of the Queen', is to overlap shapes of various cosmetics like Braque's works. And colors of cosmetics were applied to make-up, providing colors on the work.